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박차

지역경제 활성화·인구유입 촉진·관광인프라 확보 2023년까지 5개년 계획 총 사업비 383억원 투입

영암군은 영암읍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촉진, 관광인프라 확보 등을 위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383억원을 투입해 영암읍 교동지구 일원 177,005㎡ 부지에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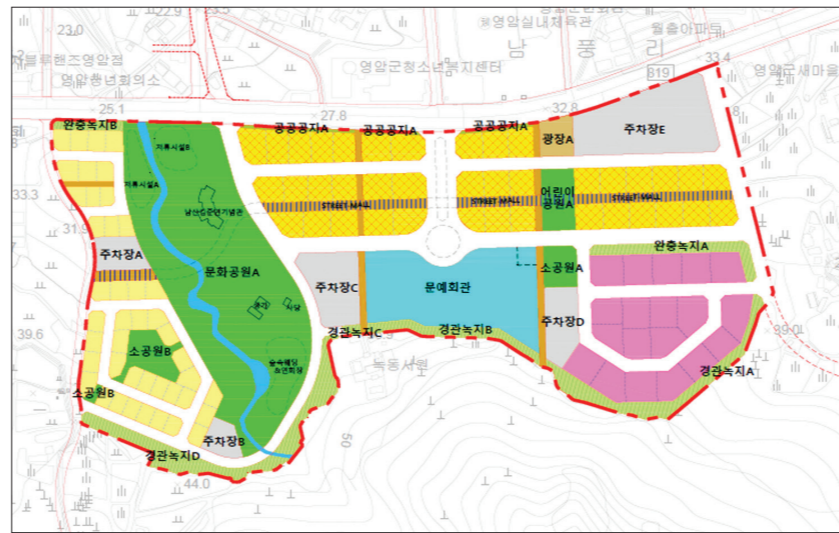
해당 사업은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및 상업·관광·문화공간 확보를 통해 인구유입을 촉진하며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영암읍 지역의 명소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단계별로 추진(1단계 :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2단계 : 실시계획, 3단계 : 공사시행) 중이며, 올해 1단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 주민설명회, 관련 기관(부서) 협의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

회 등을 거쳐 전라남도의 승인(전라남도 고시 제2020-530호)을 득했다.

금회 승인 받은 영암 교동지구의 개발계획은 군의 관광명소와 주거·상업·관광·문화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형단지를 조성하여 에너지 충전과 편안한 휴식, 스트레스 해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는 힐링시티(Healing City)를 기본 컨셉으로 하고 있다.

도입기능으로는 ▲지역예술인, 은퇴 공무원 등을 위한 창작마을, 야간 공동화 방지를 위한 일반 단독 주택용지 등으로 대표되는 주거기능, ▲식음료, 패션, 판매, 공방 등을 도입하고 월출산 탐방객 및 관광객을 지원하는 상업기능, ▲문예회관을 비롯한 군의 부족한 문화시설 및 주차장을 확충하고 시설 정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공시설을 도입하는 공공문화기능, ▲내·외국인 관광객의 체류지원을 위한 숙박시설을 도입하며 월출산 둘레



길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관광휴양기능 등이 있다.

도지이용구상으로는 크게 단지 서측은 정주공간으로서 거용지(단독주택용지)로 배분하고 단지 동측은 동적인 공간으로서 공·상업공간(공방·근린생활용지, 숙박용지 등)을 배치하였으며, 남산김준연기념관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해 녹지체계를 연결하여 도시기능의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 하였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개발계획이 승인된 만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2021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영암읍 내 정주여건 마련, 종합적인 문화·관광인프라 확보 등을 통해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조태호 기자



목포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탄력 조성 기본계획 고시 완료...수산물 거래소·임대형 가공공장 등 구축

목포시는 지난 2일 지역 수산업을 선도할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 5월부터 용역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사업규모와 기능, 시설의 적정성과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대양산단 2만8133㎡ 부지에 연면적 46,909㎡(지상5층) 규모로 1,0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수산식품 수출단지에는 가공공장, 냉동·물류창고와 거래소, R&D 지원센터 등 3개 건물이 구축된다. 여기에는 지역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가공 산업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임대형 가공공장, 연구지원 시설, 냉동·냉장창고, 마른김 거래소, 수출지원 시설 등이 들어선다.

목포시는 지난 2일 지역 수산업을 선도할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 5월부터 용역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사업규모와 기능, 시설의 적정성과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대양산단 2만8133㎡ 부지에 연면적 46,909㎡(지상5층) 규모로 1,0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수산식품 수출단지에는 가공공장, 냉동·물류창고와 거래소, R&D 지원센터 등 3개 건물이 구축된다. 여기에는 지역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가공 산업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임대형 가공공장, 연구지원 시설, 냉동·냉장창고, 마른김 거래소, 수출지원 시설 등이 들어선다.



'섬 겨울꽃 랜선 축제' 개막식 온라인 개최

신안군은 11일 압해읍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52일간의 '섬 겨울꽃 랜선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개막식은 유튜브 채널(채널명 : 섬겨울꽃축제)로 생중계 되었으며, 14개 읍면 주민들이 화상 인터뷰를 통해 실시간 소통하며 축제의 기쁨을 함께 하였다.

군에서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당초 계획했던 체험 행사는 모두 취소하고, 비대면으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준비하였다.

공식 홈페이지 (www.섬겨울꽃

축제.컴)에서는 ▲축제 캘러리, ▲1004섬 ▲애기동백꽃 화화전, ▲1004 랜선여행 영상, ▲2019년 섬겨울꽃 유튜브 공모전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으며, 온택트 참가자들의 참여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였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2020.12.11. ~ 12.20.이다.

또한, 홈페이지 내 '애기동백 화화전 도슨트 투어' 코너에서 작가들의 해설영상을 준비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와 현장감을 높였다. '애기동백꽃 화화전'은 12월 4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분재공원 내 저녁노을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영광군, 내년 e-모빌리티 산업 예산 387억 확보 사업 추진 탄력

영광군은 2021년도 국고 사업 예산 중 e-모빌리티와 관련한 국가 예산 387억 원을 확보해 e-모빌리티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국고 예산은 현안사업 8건 317억 원, 신규사업 3건 70억 원 등을 포함한 총 387억 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고지원 건의사업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분주하게 노력한 성과물이다.

주요 현안사업은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 랩 증진 기반구축사업(41억) ▲초소형전기자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39억) ▲중소·중견 기업지원을 위한 전자자동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개발(90억) ▲이동형 융합 기기용 전

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 기반구축사업(38억) ▲e-모빌리티 기반 수소연료전지실증 인프라 구축사업(25억)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사업(39억)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40억) ▲제4회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사업(5억)으로 총 8건에 국비 317억 원을 확보하여 e-모빌리티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신규사업으로는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30억) ▲미래차전자파 적합성 인증평가 시스템 구축사업(30억) ▲e-모빌리티 공정 고도화 기반 구축사업(10억)으로 총 3건에 국비 70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비대면 손 씻기 위생교육 실시

무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배사숙)는 지난 11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위생교육을 비대면으로 3주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뾰족 뾰족 손 씻기'를 주제로 관내 어린이집 40개소 아동 650여 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안 비누를레이 키트를 제공하고 동영상 활용한 비대면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난 10월 영암의날 건강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